

# 미래에셋생명 “평생 기본 연금 보장하며 최대 추가수익”



미래에셋생명에서 출시한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안정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연금보증형을 도입, 사망 시점까지 매월 안정적 규모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업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변액보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공하며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고객의 행복한 은퇴를 돕는다.

미래에셋생명은 원금 이상의 수익과 안정적 연금 수령을 동시에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최저 연금액을 보장하는 최저연금보증형을 도입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더 높은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대의 경우에도 연 복리 1%를 적용한 최저보증종신연금을 보장받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으면서 추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90세 조기집중형을 통해 활동기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연금 개시부터 90세까지는 조기집중형태로 설계돼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운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량 자산에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실현 중이다. 이 상품 역시 총 50개의 다양한 펀드 라인업을 구축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우량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65%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며 변액보험 리딩컴퍼니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투자 노하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분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자산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MVP 펀드는 2014년 4월 출시 이후 순자산 규모 1조4천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 상품은 각종 수수료가 없어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다. 보험료 추가납입 및 연 4회 이내의 중도인출, 연 12회 펀드 변경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특화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변액보험 펀드에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 펀드 등 차별화된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해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실천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